

社說

원평사격장 피해 해결하라

포천시의회는 군 사격장(훈련장) 때문에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004년10월7일 시의원 14명 전원이 서명한 군부대 사격장(훈련장) 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집행부로 보냈다.

당시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시(市) 전체 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21km 가량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부대 사격장 또는 군사시설물도 이용돼 그동안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수·영복·이동면 사격장 주변 일대는 밤낮으로 계속되는 탱크 및 비행기 사격으로 주민들이 불편증과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택군역 침, 가축 낙태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동·영복면 상류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탄류로 명성산 계곡과 산정호수를 오염시켜 국민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영평·원평 사격장과 승진훈련장을 이전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재조정하는 한편 행정위탁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포천시의회는 2005년2월 18일 군부대 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군부대 사격장 피해 지원 특별법을 입법 청원했다.

포천시의회는 훈련장 인근 주민들이 불편증과 정서 불안, 주택 균열, 가축낙태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자 2004년10월 특위를 구성, 5개월 동안 현지 방문 및 주민 피해실태 조사를 벌였다.

포천시의회와 주민들은 그동안 영평·원평 사격장과 승진훈련장을 이전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재조정을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2007년11월12일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주민들이 군(軍) 부대가 사격훈련을 하려하자 사격장 진입로를 봉쇄하고 나섰다.

이동면 연곡리 사격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트랙터 9대로 폭 7m 가량인 사격장 진입로를 2~3겹으로 막았다.

반대추진위는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차의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전차 이동에 따른 분진 등으로 말로 다하지 못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마을 쪽으로 더 내려오는 것은 마을을 떠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격장 이전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해당 군부대에 물론 국방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등에 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알렸다.

군 부대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하반기 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섰다. 군은 "확장이지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전차에서 사용하는 포가 106mm에서 120mm로 바뀌며 사거리가 500m 가량 늘어 사격장 길이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전체 훈련장 면적은 그대로"라고 호소했다.

지난 9월에는 민·관·군 대책회의를 열어 밤음역과 분진방지시설 설치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하반기 사격훈련을 미뤄왔는데, 더 이상 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한 훈련을 시작하려 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와 군부대의 국토방위를 위한 훈련사 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천시의회 또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더 이상 농민들이 추운날씨에 시위에 나서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농업인과 시민 하나되는 화합의場

제12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포천시 제12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14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장을 비롯해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농축산업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그리고 지역농업인 등 모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머무르고 싶은 복지농촌 건설'을 농정목표로 삼아 농업·농촌 활성화를 농가소득증대에 모든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인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또 농민들이 맘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1촌 1차, 1촌 1교, 1촌 1부서 자매결연 등의 농촌사랑운동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제7회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수도작 부문에 김준영 씨(소흘읍 이가팔리), 원예부문 양은적 씨(일동면 길명리), 축산부문 안태용 씨(설운동), 과수부문 이호림 씨(관인면 탄동리), 임업부문 차면현 씨(내면 좌외리)가 각각 농업인 대상을 받았다. 이밖에 농업발전 유공자 및 농업직원,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식전 행사로 진행된 사물놀이와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축하공연, 5080 은빛 우리춤 건강체조 등으로 흥겨운 농업인의 날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과 시민들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11월14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제12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學生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 제3기 위촉식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단장 양근원) 제3기 위촉식이 11월10일 오전11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학생명예기자단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포천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명 이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포천신문에 여과없이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양근원 학생명예기자단 단장은 "평범한 학생으로 생활하다가 리서야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포천신문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로서 꼭 할 일을 찾아서 하다면 어느새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임원진 선출은 초등학교를 대표하여 운담초등학교 5학년1반 조은혜 학생이 부단장으로 선출됐고 중학교를 대표하여 영중중학교

2학년 1반 최나현 학생, 고등학교를 대표하여 동남고등학교 2학년1반 김기정 학생이 각각 부단장으로 선출됐다. 또 감사에는 포천고등학교 1학년4반 원서연 학생이 선출됐다.

이날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명예기자들은 소감을 통해 "말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오늘 학생명예기자단 위촉식을 보면서 포천의 새로운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며 "학생명예기자들의 밝고 똑똑한 모습과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의 정론직필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포천시 발전을 견인해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명예기자단으로 위촉된 명예기자는 각 학교의 자랑스러워, 친구들과의 대화, 공부하는 방법, 우리동네 이야기 등을 자연스럽게 작성하여 포천신문에 보도하게 되며 특별한 취재를 요청하는 제보할 수도 예상된다.

한편, 포천신문사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를 차례대로 조직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은 물론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해 사회와 언론매체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 제3기 위촉식이 11월10일 오전11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학생명예기자단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진군문 주주시장, 포천 명예시민

양도시 상호협력 방안 등 관심사 논의

포천시는 지난 14일 중국 주주시 진군문 시장에게 포천시 명예시민패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가검과 주주시 국가급 고신구 관리비시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청 시장실에서 열렸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전달하며 그동안 포천시 발전에 애써준 진군문 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포천시의 명예시민이 된 것을 축하했다.

박 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전달

한 후 환담을 나누며, 주주시 내에 한국공업인 설립에 따른 협력 사항과 두 도시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천시는 중국 주주시와 지난 해 9월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행정·교육·청소년·체육·문화 등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방한단은 아도니스골프장을 시찰한 후 반월아트홀에서 포천시 시민들에게 민속공연을 관람하고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마쳤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11월14일 중국 주주시 진군문 시장에게 포천시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 그동안 포천시 발전에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축하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기습 대설·한파 등 신속 대처키 위해

포천시는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기습적인 대설·한파 등에 신속히 대처해 재해로부터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자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12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해 24시간 재해대책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별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상황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포천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난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고 재난관리과장을 팀장으로 한 T/F팀 (3개반 13명)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사전대비 및 상황발생시 민간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해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는 물론 군부대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작물 등에 대한 월동시설 설치 유도과 함께 시민생활 안전대책, 동절기 전열기구 안전점검 등 한파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보호체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0원 / 년 50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장 김영복
광고접수 (031)542-9888	인쇄인 김규석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요강을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군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1월 10일 ~ 11월 1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 2007.11.10 포천신문 제394호 발행
- 2007.11.20 포천신문 제395호 발행
- 2007.11.30 포천신문 제396호 발행예정